

하나님의 숨은 그림으로 살다

(사도행전 21:10-20)

바울과 일행은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동료들의 간곡한 만류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바울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동료들은 비난이나 불평 대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간청을 그쳤습니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는 눈에 잘 띄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보석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세 가지 숨은 그림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숨은 그림은 가이사랴의 이름 없는 몇 제자들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 다. 선지자 아가보가 모노드라마처럼 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자 일행의 분위기는 극도로 침체되었습니다. 바울의 동행자들마저 행로를 가로막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중에 하차하기 마련이었습니 다. 바울 일행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기근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의 구제금을 전달하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 다. 반면에 가이사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생활 기반을 버리고 험난한 길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 다. 그곳에 가면 자신들에게도 핍박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고난을 가로막고 여의치 않으면 함께 결박당하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습니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바울을 돕고 작은 예수로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숨은 그림은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입니다. 바울 일행과 제자들까지 합치면 열서너 명이 족히 넘는 적지 않은 무리였습니 다. 나손은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큰 집을 온전히 개방하고 직접 동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과 사회적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부자였습

니다. 유대인 중심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일은 가문의 기반을 흔들고 극심한 핍박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편지를 보내 집만 빌려줄 수도 있었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 일행과 걸어갔습니 다. 나손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던 바울의 신앙에 감화되어 자기 손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가난과 비방 속에 처해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부요하다는 칭찬을 받습니 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요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부요함에 대해 갈등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숨은 그림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야고보입니다. 순교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를 찾아갈 때 들어갔다는 극존칭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높은 권위를 드러냅니다. 유대 사회는 혈통과 족보를 무엇보다 중시했으므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혈연적 정통성을 내세워 교권을 영구히 세습할 수도 있었습니 다. 만약 그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면, 무함마드 사후 혈통 세습 갈등으로 분열되어 오랜 살육을 겪은 이슬람 종파처럼 교회 역시 깊은 분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가문의 혈통이나 개인의 기득권을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 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도록 온 힘을 쏟은 뒤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는 것 같은데 따라가는 몇 제자들,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입으면서 헌신한 나손 그리고 자신의 혈통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야고보,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 무리하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숨은 그림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선택을 했다는 점

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래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결단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값은 길 없는 자를 대접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일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바쁜 성도들에게 현실과 타협하게 하기보다 바쁠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 말씀 훈련에 매달리도록 권면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해 보였던 그 결단은 성도들의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고 삶과 물질의 참된 질서를 세우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야 대장부라는 결단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카이로 선언 당시 장제스 총통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명문화하도록 이끈 배경에는 목숨을 걸고 폭탄을 던졌던 스물네 살 청년 윤봉길 의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습니 다. 무모한 저항처럼 보였던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 독립의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광야로 나아간 모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에스더, 산지를 요구한 여든다섯의 갈렙 역시 모두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안전한 여건을 마련한 뒤에 헌신하라고 유혹하지만 때를 기다리다가는 사명을 놓치기 쉽습니 다. 가이사랴의 이름 없는 제자들과 나손, 그리고 야고보가 감당했던 거룩한 무모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숨은 그림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계산을 넘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퍼즐 조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